
탈식민, 탈냉전과 해방이후 '국가건설' 연구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시각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탈식민 시기 해방이후사에 대한 인식

일제 식민 시기를 벗어난 1945년 이후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러나 식민지로 전락하며 좌절되었던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식민 시기 '국가', '국민'이 부재한 한반도에서 민족은 국가건설의 핵심적 요소인 국민 그 이상의 존재였다. 민족은 탈식민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국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될 국가를 설계하며 정치세력들은 식민 유산 청산 여부와 민족운동 노선 등의 차이로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일되지 못한 입장의 차이는 국가건설을 둘러싼 이념적 헤게모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냉전의 형성이라는 세계정세,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결론적으로 국가건설의 주도권이 한민족 자신이 아닌 외부세력에게 넘어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 '국가건설'에 대한 연구는 1980년 민주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시기의 역사 연구 분야보다 국내외 정치정세의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국내적으로는 1945년 탈식민 시기와 1960-70년대의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반공통치에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1960-70년대 이데올로기 경쟁이

극심했던 냉전체제하에서 1990년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라는 탈냉전의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탈식민, 탈냉전의 국제정치적 변화 상황과 역사 연구 시각 및 관점의 변화는 역사 연구가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을 밝혀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실이 오늘 현재와의 관계 하에서 강조되기도, 소홀히 취급되기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 연구에서 식민을 벗어난 해방 직후부터 관심이 집중된 주제는 새롭게 구성될 ‘국가건설’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지향점이었다. 이것은 한국사 시기구분에서 ‘현대사의 시점’을 1945년으로 설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탈식민과 함께 ‘근대국가’ 형성 및 성격을 포함한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원형들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시대적 중요성 때문이다.(역사문제연구소, 9) 그리고 주된 관심의 실질적인 이유는 이 시기가 탈식민과 함께 부과된 식민체제를 극복하고 좌절되었던 근대 자주 국가건설을 이룰 수 있었던 희망의 시기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역사적 사건 특히 ‘국가건설’을 바라보는 탈식민적 관점은 중요하다.

현재까지 탈식민과 근대 국가건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탈식민 시기였지만 근대 국가건설의 과제는 좌절된 체 분단국가가 형성된 시기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제한적이지만 남한에 민주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인식이다.¹ 이것은 탈식민과 그에 뒤따르는 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 및 해석의 차이로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시각은 탈식민 이후의 최대의 과제를 민족적 과제 즉 통일 민족국가건설로 설정하는 반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 체제 수립에 강조점을 두고 민주주의의

1. 전상인(2001). 『고개속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전통과현대; 유명익(2006).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연세대출판부; 김일영(2006). 「통치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대통령재평가』, 연세대출판부; 박지향 외(2006). 「대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등이 대표적이다.

제도와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탈식민 과제를 식민 청산과 민족 독립 국가건설로 상정한 중요 정치세력의 국가건설 구상은 일제 시기와 달리 해방 후에는 현실성을 띤 문제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었고 쟁점화 되었다. 그러므로 해방이 되면서 분출되었던 민중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변혁과 혁명에의 의지,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과제는 미·소라는 외세에 의하여 강하게 규정 받았다. 그리고 과제의 미해결은 한민족 역사의 '최대' 비극인 분단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들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기원설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연구 시각은 1980년대 후반 이래 현재까지 미국의 대한정책 및 우익세력의 국가건설에 주목하게 했으며, 그리고 이 주제는 분단이라는 현시대 상황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은 해방공간에서만 제기되었던 핵심적 과제는 아니다. 해방공간에서 전개된 많은 정치운동은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연장이었으며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해방 3년간 한반도에서는 해방된 조국에 어떤 국가를 수립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각이 해방직후를 민족 국가건설의 시기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들은 분단시대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다른 시각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민족적 과제를 '민주주의적' 가치에 두는 것이다. 남한에 민주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이해의 척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남한의 민주주의 발달사와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과정에 대한 관심과 남한 단정수립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비교하는 입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² 전자의 입장은 199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사회과학계

2.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용어

를 중심으로 '객관적' 수치 등 계량화 방법을 '절대시'하며 논의를 전개시켰다. 즉 해방이후의 시기가 민족 독립 국가건설의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온 민주국가 건설의 시기이기도 하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직후 비록 미군정에 의해서였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체제가 도입되었고, 진통을 겪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 질서가 서서히 확립되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보통선거 제도의 확립과 실시를 강조하고, 경제적으로 토지개혁 및 귀속재산 불하로 지주계급의 해체와 소농체제의 확립 그리고 토지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시민권의 확대와 나아가 이 시기에 국민적 정치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즉 통일국가의 수립이 좌절되고 남북한에 체제가 다른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사실(史實)은 일면 일민족일국가(一民族一國家) 형성이라는 민족사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일민족이국가(一民族二國家) 형성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남한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에 기초하여 주장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소련의 팽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 한반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위기를 극복하고 수립된

논쟁은 2011년에도 교과서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다. 이것은 용어 사용이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신문의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자유민주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든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다. 기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표시라면, 기의란 그 어떤 것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기의가 된다. 문제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기표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가 이번 논쟁에 골자가 될 것이다. 보수세력은 그 기표를 ‘자유민주주의’라 주장하고 진보세력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논쟁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가 가리키는 기의에 대해서 두 세력은 첨예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시라”라는 발언을 하였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라고 받아쳤다; 전대원(2011). 「보수·진보의 자유민주주의 논쟁, 본질은? 보수와 진보의 ‘자유민주주의’ 첨예한 해석 차이」, 『오마이뉴스』 2011. 10. 24.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미국과 남한의 우익세력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이 입장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과 수립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였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나아가 남한의 단정수립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택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해방직후 국가건설에 대한 인식 및 시각의 차이는 민족과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중 어느 한쪽을 더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탈냉전 등 국내외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시기 이후 활발해진 1945년 이후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에 분단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198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분단기원, 책임론의 전통주의 시각의 연구들을 재검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재검토 과정은 남북한 분단 극복의 대안 모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내정치지형의 변화는 정치사, 운동사 중심이었던 해방직후사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2000년대들어 다른 한편으로 보수적 성향의 뉴라이트적 시각이 대두하였다³.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의 대두는 탈냉전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탈냉전으로 연구 시각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듯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막아내고 '기존의 틀'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더 강력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진보세력의 성장과 밀접하게

3. 뉴라이트(New right)는 1980년대에 등장하여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룬 사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사상이다. 케이즈파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고, 공공정책을 위한 시장 기구의 부활과 시민권의 제한을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2004년경부터 수구·부패이미지로 점철된 기존 우파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뉴라이트 운동이 활성화되었다(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354&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 2018년 1월 15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탈식민과 함께 해방공간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국가건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탈냉전시기 이후 현대사가 어떠한 연구 경향을 지니며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국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며 고찰할 것이다.⁴ 그리고 본 연구는 역사 연구 경향을 정치 경제, 사회학적 관점을 포함한 학제간 연구 분야를 해방직후부터 대한민국정부수립 기간 동안 미소의 대한정책, 분단의 기원, 분단 책임론, 이승만의 대한민국정부수립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고찰할 것이다.

II. 냉전과 한반도 ‘국가건설’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시각

냉전이 국제정치학을 지배하고 있던 1960, 70년대 해방 직후에 대한 연구는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뒤 이은 분단국가 수립, 그리고 6·25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냉전구조의 기원과 성격 규명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당시 냉전기원의 책임에 기반한 연구는 분단국가 수립, 즉 분단의 책임이 외세인 미·소에 있는지 아니면, 국내의 분열된 정치세력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당시 한반도의 분단국가 수립의 책임 규명을 밝히겠다는 ‘목적의식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경향 및 성과가 국내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국학자들은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미소 냉전체제 구축에 결정적

4. 국가건설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가 독립한 국가로서 대내외적으로 주체성을 확립하고 주권을 행사하며 통치권을 갖고 배타적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 사회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 Nation Building)과 국가형성(State Building, State-Formation, Making State) 등의 용어들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본론에서의 분단국가, 분단국가 수립과 같은 용어들 역시 이 국가건설의 맥락 하에서 사용되었다.

영향을 미친 한반도에서의 미·소 충돌에 관심을 기울이며, 분단국가 수립과 정과 6·25전쟁에 대한 연구로 이어갔다. 냉전기원과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당시 팽배했던 냉전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미국 학자들은 대체로 냉전기원, 한반도 분단국가 수립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소련에 있으며, 김일성과 좌익세력도 일정정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연구 시각을 전통주의 시각이라 한다.⁵

전통주의는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대립, 갈등현상 등 냉전의 책임을 소련의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팽창정책에서 찾는다.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를 소련의 도전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응전 내지는 봉쇄로 설명한다. 이것은 당시 유럽에서의 공산화와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해방 이후의 한국정치를 분석한 연구는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체제의 성립, 6·25전쟁의 발발 등의 일차적 책임이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한 소련과 북한 지도부에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미소분할점령은 단순히 군사적 편의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으나 해방 직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개된 미소공동위원회와 UN총회에서 소련의 '적화야욕'이 표출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국 측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은 좌절되었고, 소련은 6·25전쟁을 통하여 야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는 것이다.⁶ 전통주의적

5. 전통주의 시각의 해외학자들과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George M. McCune and Arthur L. Grey(1950).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0); Cho, Soon Sung(1967).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45: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조순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당시 이미 소련군은 한반도에 진입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의 일본군 항복 접수에 대한 모종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기로 본다. 그러므로 시간의 부족으로 한반도 분할 결정이 승인되었다며 이 시기를 소련의 야욕에 대처해야 했던 비상 시기였음을 강조한다.; 한승조는 전통주의관 민족주의적 시각 특히 우익, 보수, 반공적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시각으로 보고 있다. 한승조(1990). 「해방전후사를 보는 시각」, 『해방전후사의 쟁점과 평가』 1, 형설출판사, 90쪽
6. 전통주의적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Dae-Sook Suh(1967).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1972), *Communism in*

시각에 입각해 한반도 분단을 분석하는 시각은 적어도 1980년대 전까지 미국학계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이 시기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현대사 연구는 거의 ‘불모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진행된 연구 주제도 반탁투쟁과 분단과정, 전쟁으로 이어지는 참상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 주제들의 연구는 좌익 공산주의 세력을 비난하고 궁극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하거나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한민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변하여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방해한 좌익세력과 점령지역에 일찍부터 소비에트 정권을 구축하고 UN의 합법적 결정내용을 무시한 소련 측에 돌리는 것이었다.⁷ 이 시기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당시기 연구들은 해외 특히 미국의 전통주의적 시각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60-70년대 자리 잡았던 전통주의적 시각은 궁극적으로 해방 직후를 탈식민적, 사회문화사적, 생활사적 관점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특히 분단 이후 정치, 사상, 이념의 분단 고착화는 한국역사학계 역시 이념적 대립 틀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남한학계는 문헌고증 위주의 역사학이 주류로서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이 시기를 바라보게

Korea, California: Univ. of California Press. 이들 연구는 소련의 사주로 정권을 획득한 김일성의 실체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일제 시기부터 국내공산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 사상 및 운동 목표의 변질과정을 추적하고 소련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는 소련의 팽창욕구와 김일성의 권력 장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나아가 이를 한반도 분단 책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7. 김학준(1975).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김학준(1976). 「38선 획정에 관한 논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0집; 김점곤(1973). 『6·25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이호재(1969),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송남현(1976). 『한국현대정치사 I』, 성문각; 김남식(1984). 『남로당 연구』, 돌베개; 홍종혁(1974),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문출판사; 양호민(1972). 『북한의 소비에트화』, 『북한공산화과정연구』,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향은 말할 것도 없고 우익이라도 '통일지향'의 민족주의적 관점 또한 금기시되었다. 이런 연구 경향은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 연구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치학적 경향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 시기 연구 경향의 '경직화'를 가지고 왔다(서중석, 1997, 32).

물론 이 시기 이러한 연구 시각을 극복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냉전이라는 국제정치학적 경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한반도 국가건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한반도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미소의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거나 국내에서도 그 시기 국제관계 및 국가건설과 관련된 좌우익세력의 정치지향성, 지지 세력의 성격 등 복합적 요인의 고려보다는 냉전이테올로기에 입각한 좌우의 대칭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좌익세력의 친소련적 성격, 비도덕성 강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남한만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한 결과 한국사에서 북한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III. 탈냉전과 수정주의의 국가건설에 대한 연구

1980년대 이전의 전통주의 시각에 입각한 해방 직후를 바라보는 연구 경향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선 정치경제학, 사회학, 역사학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연구의 황무지요, 공백상태로 있었던 해방 직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서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을 활용하여 경직된 사회로 이끌었던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고 동시에 분단현실을 극복해내기 위한 자세에서 나온 국내 정치, 경제학적 분위기와 닿아 있었다.

당시 역사학계는 역사 연구를 민주화, 통일, 사회운동과 연대하거나 운동에 대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실 참여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기도 하였다.⁸ 이 시기 연구자들은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현대사 연구를 진행시켰

으며 이 시기 진행되었던 현대사 연구는 현대사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박태균 2005, 385).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본격화된 현대사의 초창기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역사 '복원'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연구는 주로 민족, 통일, 계급 등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기적으로 1945-1948년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분단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현재적 관심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사회의 응축된 모순과 갈등이 형성된 시기라는 인식과 함께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한국근현대사학회, 195-197).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태도의 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의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는 미국의 수정주의적 시각과 분단 인식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시각과 결합되어 연구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해방 이후 연구의 주된 흐름은 분단국가 수립과 그것의 원인을 미국의 팽창주의적인 외교정책에서 찾으려는 수정주의적인 시각과 한민족 내부에서 찾으려는 일종의 내인론이 대표적이다.⁹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연구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의 기본적인 시각은 해방 이후의 한국에서 전개된 일련의 정치·사회적 상황 즉 분단과 6·25전쟁 등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¹⁰ 수정주의 연구의

-
8. 1988년 창립된 한국역사연구회의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의 수립'이라는 구호가 이것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9. 본격적으로 현대사 연구를 촉발한 요인으로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1979, 한길사)과 브루스 커밍스의 『6·25전쟁의 기원』(1986, 일월서각, 청사) 번역 등의 출간을 들 수 있다.
 10. 커밍스는 미국정부와 미군정의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였다는 점이나 미국의 신탁통치 실시 주장의 배경을 포함한 미국과 미군정의 대한정책을 깊이 연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커밍스는 6·25전쟁이 1950년 6월 전후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생각은 한반도의 분단과정에서 축적된 이념 갈등과 대립을 무시하는 것이며 오히려 분단사적 배경을 통하여 6·25전쟁의 기원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며 전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의 복합적 요인들을 중시하였다.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1986), 『6·25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Bruce Cumings(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Princeton Univ. Press.

출발점은 미국의 전후 정책이 제국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확산이라는 세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미국이 전후 세계질서를 자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을 통합하고자 했다는 전제하에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소련으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는 방어정책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냉전의 시초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미온적이었고 수동적 입장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인하여 모스크바3상회의의 국제적 결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미군 점령지역에 미국과 결탁한 이승만과 지주 출신의 한민당 세력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결국 남북한에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본다.¹¹

한반도의 분단국가 수립에 대한 국외학자들의 논의가 '왜?' 라고 하는 상황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국내학자들의 논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책임 논리에 중점을 두고 해방 직후에서 6·25 전쟁 시기를 연구하였다. 국내학자들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외세인가? 국내 세력인가? 외세라면 미국인가? 소련인가? 국내에 있다면 좌익인가? 우익인가?' 등의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이 시기를 바라보고 있다(안병도, 20).

한편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학계를 포함한 국내 연구자들은 분단극복이라는 현 상황의 민족사적 과제와 결부시켜 분단 내인론을 강조하였다(강만길 1984; 김광식). 분단내인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강만길이 있다. 강만길은 분단에 끼친 외세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시대에 대한 반성과 주체적 역사인식을 표방하면서 분단의 내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민족분단의 원인을 외세의 작용에서만

11. 브루스 커밍스와 콜코 부부는 냉전을 미국과 소련간의 이념적인 대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와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Joyce Kolko & Gabriel Kolko(1972). *The Limits of Power :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 ; Michael Sandusky(1983).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Old Dominion Press 등이 있다.

찾는 것은 비주체적 역사인식이 될 수 있으며, 분단 자체가 민족적 역량으로 막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것이 된다면 분단불가피론, 나아가서 분단 당연론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논리는 통일문제에서도 외세결정론으로만 갈 수도 있다며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¹²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한국민은 그저 수동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서도 한국민은 그저 제 3자로 역사의 무대에서 비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80년대 중후반 현대사 연구자들에게 민족주의의 관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주의 시각과 민족주의적 역사인식 태도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현대사 연구를 민족내부의 분단극복과 관련하여 김규식, 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과 김구, 김규식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로 이어지게 하였다.¹³ 이것은 이들 연구를 통해 분단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또 하나 지적할 있는 역사 연구 경향은 민중사학이다. 민중사학은 역사의 주체나 동력을 민중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지배층 중심의 관점을 지양 한다. 그러므로 해방 직후 연구에 대한 민중사학의 영향은 이 시기 전개된 민중운동과 민중들의 혁명적 열기, 개혁적 요구 등을 부각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인민위원회와 건국준비위원회 지부의 활동, 북한의 토지개혁, 10월항쟁 등과 관련된 연구물 들이다.

-
12. 강만길은 민족주체적 역사해석을 강조하며 20세기 후반기의 분단사를 '분단시대', '통일운동의 시대'로 불러야 하며 역사를 움직이는 구심력을 민족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만길(1978). 「분단시대 사학의 성격」,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 (1985). 「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 『한국민족운동사』, 한길사; (1988). 「남북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신동아』 8월호.
13. 서중석(1990). 『해방후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국가 건설운동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태균(1991). 「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 정치구도의 변화」, 『한국사연구』74 ; 도진순(1993). 『1945-1948년 우익의 동향과 민족통일정부 수립운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용욱(1996).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석률(1997).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러나 이 시기 현대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한반도 분단 국가수립과 관련된 국제 규정력으로서의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는 소련의 대한정책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련 측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시기 연구는 지나치게 편중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정치세력과 관련하여 식민유산 극복의 강조로 인하여 좌익세력의 국가건설, 정치활동에 연구가 집중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민중사학에 입각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민중의 활동을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자체가 현재의 문제와 결부시켜 역사를 보려는 역사의 '현재성'이 강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가의 사명을 실천성에 뭉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표출'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과 닿아 있다(백승중 201-202).

탈냉전 이후 소련 측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소군정의 대한정책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한계점은 서서히 극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전현수). 국내정치세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좌익세력뿐만 아니라 우익의 정치활동, 국가수립 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해방 직후사 뿐 아니라 1950년대까지 시기를 확장시키며 박사학위 논문들이 나오는 등 편중성이 일정정도 극복되고 있다.¹⁴

IV. 뉴라이트의 해방 직후 '국가건설'에 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이후 해방 이후사에 대한 연구들의 특징은 시기와 주제의 확장이다. 민주화 시기 이후 현대사 연구가 민족, 통일 등 거대담론을

14. 정병준(2001). 『이승만의 독립노선과 정부수립운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강혜경(2002).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수자(2003). 『대한민국 초기 이승만의 권력기반 강화과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등의 연구들이 있다.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척시켰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일련의 연구자들이 현대사 연구 주제의 ‘쏟림’ 현상을 너머 사회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 가족, 제도 등 사회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용기, 김동춘). 이것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연구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 결과 이 시기 현대사 연구는 1950년대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해방 이후사에 대한 연구의 심화와 연구자들이 증가하는 데서, 연구 주제를 넓히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와같은 이전 시기와의 연속적 현상외에도 다른 연구경향이 나타났다. 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입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해방 직후사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기존의 연구시각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뉴라이트 시각이라 부를 수 있다.¹⁶

뉴라이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등장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탈냉전 즉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지형의 변화에 의한 위기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2000년

-
15.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되어 나오는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시리즈는 연구 시기가 확장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의 연구물들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점숙(2000).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1945-50년)물자수급정책』,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이현진(2005). 『제1공화국기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정책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박진희(2005). 『제1공화국의 대일 정책과 한일회담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허은(2005). 『미국의 대한 문화 활동과 한국사회의 반응 :1950년대 미국정부의 문화활동과 지식인의 대미인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김영미(2005). 『일제시기~6·25전쟁기 주민 동원·통제 연구 :서울 지역 정·동회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16. 1997년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한국현대사연구의 반성과 전망: 수정주의 이후의 새출발”과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 연구소가 주최한 “현대사의 흐름과 한국현대사”가 대표적이다.

대 이후 진보적 정치세력의 독주와 보수세력들의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주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국가관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사 연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한미동맹의 약화와 대북정책 추진 등으로 한국사회가 좌편향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북한 경제의 침체성, 낙후성 등을 부각시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뉴라이트계열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반공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반공이 아닌 다른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에 대한 배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뉴라이트계열의 연구자들은 해방 직후 소련의 대한정책의 적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노선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이정식). 그리고 수립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해 특히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 정부의 부정, 부패 등 나쁜 기억만을 끄집어내 강조하고, '건국'을 이끌어낸 우익지도자들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현대사 자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⁷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주화시기 이후 성장한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한국현대사 연구, 특히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대한 연구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은 '대안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17. 유영익은 『한국사 시민강좌』 38집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에 육박하고 또 스포츠, 예술,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인의 활약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져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지배적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은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유영익(2006). 「독자에게 드리는 글」, 『한국사 시민강좌』 38집, 일조각).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을 마치 미국의 ‘허수인’으로 보는 현 역사학계의 역사인식은 좌편향적이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한 역사연구자들의 연구 시각을 비판을 넘어 불신하고 있다(유영익).

이러한 뉴라이트계열 연구의 시각은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전의 연구들은 이승만의 독재성에만 강조를 두고 그 외의 업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다른 학문분야 정치, 사회학 등 사회과학계 보다 역사학계 연구자들이 당시의 국제 정치학적 상황 등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미시적, 일국적, 도덕규범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현대사를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지향 외). 즉 대한민국의 건국을 냉전, 전쟁, 국가건설 등의 거시적 조건들과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왜 이승만은 5.10선거를 서둘렀던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기도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일제시기 국가 없는 설움을 겪었던 이승만 그리고 그의 임시정부의 활동과 경험에서 나온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찾거나 당시의 냉전이라는 국제적 조건 속에서 미소의 협력 하에서 통일국가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의 국제정치적 안목과 현실주의에서 구하고 있다(이정식, 69-71; 김일영, 75-77, 125). 뉴라이트계 연구자들은 “이승만이 냉전이라는 국제적 조건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생국가를 만들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건설, 산업화, 민주화 등의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도진순 2004, 356).¹⁸ 이와 같이 뉴라이트계는 이승만의 정치활동과

18. 이승만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 많은 전기와 연구들이 있지만 ‘찬양’ 일변도다. 그러나 1980년 전후 시기에는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등의 세계정세와 결합하여 이승만의 분단노선이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한우와 유영익을 들 수 있다.

정부수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 해방 이후에 대한 뉴라이트 계열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제 확장의 가능성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 연구 목적이 마치 민주화 시기 이후 성장한 한국역사학계의 현대사 연구물에 대한 비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는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기존의 냉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연구물을 그대로 '재대두'시키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척시켜 축적된 현대사 연구물들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연구태도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계 시각에 입각하여 해방 이후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일제 식민 시기를 근대화론과 결부시켜 바라보려는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탈식민성의 문제는 반공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무게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치 민족적 과제 해결을 도외시키는 문제의식은 큰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가 과거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며 과거의 사실은 현재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데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치 민주화 시기 연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실제성을 부정 또는 간과하고 있다고 호도하기도 한다.

V. 결론

모든 연구는 새로운 시각이나 해석을 전제로 한다. 또는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 발굴되어 보완되어야 한다. 진보학계가 권력의 탄압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새로운 해석과 시각 그리고 역사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작업때문이다. 한편 역사의 발전을 전제로

학문세계 또한 끊임없이 자기 시각을 교정하면서 시대변화에 조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의 해체라는 국제정치학적 변화 속에서도 냉전을 내면화한 이데올로기들은 여전히 ‘역사학계’에 뿌리내리고 있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강화, 억압된 냉전이데올로기 지형의 회복 및 극복이 연구자 세대간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는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후 현대사 연구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시기의 복합적인 국제관계 및 이와 맞물려 상호작용하며 활동했던 국내 정치세력의 국가수립의 성격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해방이후사 연구는 미시적이지만 중요한 사실들 인식의 변화, 사회변동과 삶의 변화, 정치변화에 따른 생활, 문화지형의 변화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실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큰 흐름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나 민중사학 같이 하나의 틀을 상정해 놓고 그 틀에 맞추어 해방이후를 보려는 시각들은 지양되어야 하며, 보다 세밀하고 철저히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정확한 해당 시대의 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대사와 관련된 역사학계의 변화 중 하나는 광범위한 해외 자료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사 및 운동사에 치중되어 있던 연구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음은 물론이고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들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문서들의 공개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실증적 역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현대사 연구의 활성화와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문의 태도가 그렇듯이 학제간의 연구는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제간의 연구는 서로의 학문적

성향과 학문적 성과에 대해 서로 열린 마음의 자세를 취할 때에만 가능하다. 학제간의 연구가 현재 원활하지 않은 역사학과 사회과학계를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시기 정치경제학, 사회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진행되어온 연구와 연구 관점 등을 공유하며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것이다.

사회과학계에서 지적하는 역사 연구의 한계인 일국사적 시각을 극복하고 비교역사방법론을 취하는 것 또한 한국현대사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한 시대에 대한 올바른 시대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대사는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역사 연구가 편향성을 강하게 띠는 의혹을 떨칠 수 없게 하는 경향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시기 연구는 분단극복의 대안 모색이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의 방안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리될 수 없음도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만길(1978). 「분단시대 사학의 성격」,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 _____(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 _____(1985). 「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 『한국민족운동사』, 한길사.
- _____(1988). 「남북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신동아』 8월호.
- 강혜경(2002).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광식(1985). 「미군정과 분단국가의 형성」, 『한국현대사』1, 열음사.
- 김남식(1984). 『남로당 연구』, 돌베개.
- 김동춘(2000). 『전쟁과 사회 : 우리에게 6.25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 김수자(2003). 『대한민국초기 이승만의 권력기반 강화과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2005). 『일제시기-6.25전쟁기 주민 동원-통제 연구 :서울지역 정·동회 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일영(2006). 「통치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대통령재평가』, 연세대 출판부.
- 김점곤(1973). 『6.25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 김점숙(2000).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1945-50년)물자수급정책』,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학준(1975).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 김학준(1976). 「38선 획정에 관한 논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0, 323-333쪽.
- 도진순(1993). 『1945-1948년 우익의 동향과 민족통일정부 수립운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도진순(2004). 「한국현대 인물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2, 353-370쪽.
- 박지향 외(2006). 「대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 박진희(2005).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박태균(1991). 「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 정치구도의 변화」, 『한국사연구』 74, 109-160쪽.
- 박태균(2005). 「한국 현대사 연구의 추이와 쟁점」, 『한국사 연구 50년』, 해안.
- 백승종(2003). 「미시사의 도전」,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1986). 『6.25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 서중석(1990). 『해방후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국가 건설운동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 서중석(1997). 「1970년대 중반이후 진보적 한국사학자들의 한국근현대사 연구 동향」, 『대동문화연구』 32, 359-380쪽.
- 송남현(1976). 『한국현대정치사 I』, 성문각.
- 안병도(1990). 「한국현대사의 연구동향」,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대왕사.
- 양호민(1972). 「북한의 소비에트화」, 『북한공산화과정연구』, 아세아문제연구소.
- 역사문제연구소(1989), 『해방3년사 연구입문』, 까치.
- 유영익(2006). 「독자에게 드리는 글」, 『한국사 시민강좌』 38집, 일조각.
- _____(2006).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연세대출판부.
- 이용기(2000). 「미군정기의 새로운 이해와 ‘사회사’적 접근의 모색」, 『역사와 현실』 35, 2-36쪽.
- 이정식(2006). 「이승만의 단독정부론 제기와 그 전개」, 『한국사시민강좌』 38, 40-73쪽.
- 이현진(2005). 『제1공화국기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정책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호재(1969).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 전대원(2011). 『오마이뉴스』 2011.10.24.일자, “보수·진보의 자유민주주의의 논쟁, 본질은? 보수와 진보의 ‘자유민주주의’ 첨예한 해석 차이”.
- 전상인(2001). 『고개속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전통과현대.
- 전현수(2004). 「한국현대사와 소련의 역할(1945-1948)」, 『쉬떡코프 일기』 연구, 『경북사학』 27, 1-28쪽.
- 정병준(2001). 『이승만의 독립노선과 정부수립운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용욱(1996).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한국근현대사학회(1994).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현황과 방향 <討論>」, 『한국 근현대사연구』 1, 196-230쪽.
- 한승조(1990). 「해방전후사를 보는 시각」, 『해방전후사의 쟁점과 평가』1, 형설출판사.
- 허은(2005). 『미국의 대한 문화 활동과 한국사회의 반응 :1950년대 미국정부의 문화활동과 지식인의 대미인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홍석률(1997).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홍종혁(1974).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문출판사.
- Bruce Cumings(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Princeton Univ. Press.
- Joyce Kolko & Gabriel Kolko(1972). *The Limits of Power : The World and*

-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 press.
- Michael Sandusky(1983).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Old Dominion Press
- Cho, Soon Sung(1967).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45: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Dae-Sook Suh(1967).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George M. McCune and Arthur L. Grey(1950).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1972). *Communism in Korea*, California: Univ. of California Pr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탈식민과 함께 해방공간의 가장 핵심적 과제였으며 최대의 관심사였던 국가건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탈냉전시기 이후 현대사가 어떠한 연구 경향을 지니며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국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며 고찰한 것이다.

해방직후 국가건설에 대한 인식 및 시각의 차이는 민족과 민주주의 체제 확립 중 어느 한쪽을 더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탈냉전 등 국내외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민주화시기 이후 활발해진 1945년 이후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에 분단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198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분단기원, 책임론의 전통주의 시각의 연구들을 재검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재검토 과정은 남북한 분단 극복의 대안 모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본격화된 현대사의 초창기 연구는 해방이후의 한국역사 '복원'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연구는 주로 민족, 통일, 계급 등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기적으로 1945-1948년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현재적 관심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입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해방 직후사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기존의 연구시각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 시각은 뉴라이트 시각이라 부를 수 있다. 뉴라이트계열의 연구자들은 해방 직후의 소련의 대한정책의 적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노선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한미

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방이후사 연구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시기의 복합적인 국제관계 및 이와 맞물려 상호작용하며 활동했던 국내 정치세력의 국가건설의 성격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정치경제학, 사회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진행되어온 연구와 연구 관점을 공유하는 등의 학제간 연구가 요구된다.

키워드: 탈식민, 탈냉전, 해방, 국가건설, 수정주의, 뉴라이트

Abstract

The International Politics Perspectives on Researches on Nation Building in the Post-Colonial, Post cold War Period after Liberation

Sooja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of researches of the contemporary history after post cold war period, centered on nation building, the most important task and primary concern along with post-colonialism in the liberation period considering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perspective o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right after the liberation are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emphasize nation or democratic system. These differences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s the post-cold war due to the change of the times. After the democratization period of the 1980s, research on the post - 1945 period has focused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divided n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tendency began by reconsidering the traditional studies on causes of division and responsibility theory before the 1980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efforts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the division of two Koreas.

The early research of contemporary history, which began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aimed to restore Korean history after liberation. And it mainly focused on big discourses such as nation, unification, class, and concentrated on the period of 1945- 1948. This was related to the current interest in properly grasping the reality of division.

Since the late 1990s, 'new' positions have emerged in contemporary history. They proposed a "new" vie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In particular, they criticized the existing researches on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first president Rhee syung man and tried to evaluate actively them. Their study can be called New Light. The researchers of the New Right emphasized that the Soviet policy after liberation was so aggressive that it was inevitable for Rhee to establish the sole goverment. They positively evaluat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chosen "iber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system and concluded a Korea-US alliance.

Post-liberation research requires a lot of historical facts, which can elucidate the complex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is period and the natur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domestic political forces that interacted and act in tandem.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is required for sharing research and research perspectives in the fields of political economics and sociology.

Keywords: Postcolonial, Post-cold War, Liberation, Nation Building, Revisionism

Received: 15	January	2017
Reviewed: 7	February	2018
Accepted: 14	February	2018